

# 제41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 19 호 (정기회)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   |   |
|---|---|
|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1 |
|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 2 |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현안질의 제목이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관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1.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최민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총 157건의 자료를 2024년 1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9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이준석 위원** 우선 첫째로는 지금 유상임 장관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사실 유상임 장관이 방송 관련해서 주무 장관은 아닌 상황에서 왜 포함됐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부르는 거, 만약 유상임 장관이 온다면 국무회의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지는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민 사장은 현 사장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민희** 예, 할 수 없이……

○**이준석 위원** 그렇다면 박장범 후보자랑 같이 부르는 거는 박장범 후보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게, 제 생각에 이거는 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관련하여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사실은 계엄령이 초유의, 45년 만에 있는 일이고 현대사회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없고 그리고 사전 국무회의 그다음에 사후 국무회의가 두 차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대행이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장도 국무대행의 배석자이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지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방송시설이라고 하는 게 기간방송통신사도 있지만 저희가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타 방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매뉴얼도 함께 구성해서 국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저희가 협안질의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중인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드리고 노종면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전적으로 저는 그러면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대신 저희가 그러면 언론에 나갈 때 이게 KBS 관련 협안으로 국한해서 저희가 협안질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본 결과 ‘등’을 붙이면 그런 의미가 돼서……

○이준석 위원 굳이 KBS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현 위원 국가기간방송,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해를 하는 데가 KBS이기 때문에 KBS를 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방송, 전반적인 방송통신으로 가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기간방송통신사에 대한 것과, 사실은 또 이 배경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그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지금 넣은 거니까 KBS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 ‘KBS 및’ 그러면, 예를 들어 뭐뭐의 역할 이렇게 하면……

○김현 위원 예, 방송통신.

○노종면 위원 병행해서 하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예, 병기하지요.

○이준석 위원 예, 병기……

○위원장 최민희 성안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 드릴게요.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신 중에 이준석 위원님이 카페를 좀 뽑아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에 관한 중인 채택 필요성, 간단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통상 방송사의 사장, 내정자 신분만 되더라도 방송사 조직은 그 내정자에게 공식 보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 준공영방송은 예외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정자 신분을 넘어서 이미 차기 사장으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지금 현 사장보다 더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장범 사장후보자는 아직 사장후보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불러서 책임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그러면 박장범 후보자만 부르자는 제안이신가요?

○노종면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준석 위원님의 제안이……

○이준석 위원 역할이 박민현 사장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역할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최종 사인은 또 형식적으로 하니까.

○한민수 위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 예,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만드셨어요?

제안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그냥 간단하게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부처·기관의 역할에 대한 현안질의’.

○**위원장 최민희** 좋습니다.

○**김현 위원** ‘정부의 역할’ 할까요, 정부?

○**위원장 최민희** ‘관계기관 및 부처’니까……

○**이준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부처’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처·기관 및 KBS’.

○**김현 위원** ‘관계기관’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냥 그 이름만 주세요, 이름만.

○**이준석 위원** 예, ‘관계부처 및 기관’.

○**김현 위원** ‘관계기관’.

○**이해민 위원** 기관 하면 부처를 포함하니까.

○**위원장 최민희** 정부 부처 빼고요?

○**김현 위원** 아니 관계기관에 정부가 포함되지요.

○**이해민 위원** ‘관계기관’, 포괄적으로……

○**김현 위원** 왜냐하면 정부라고 하면 방심위가 빠지기 때문에……

○**이해민 위원** 맞아요. ‘관계기관’, 기관으로 합시다.

○**위원장 최민희** 자, 명칭을 알려 드릴게요.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우영 위원** 아니요, 거기 ‘비상계엄’ 앞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위헌·위법.

○**이준석 위원** 쿠데타라고 쓰지요, 아예 쿠데타.

○**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12·3 비상계엄……

○**김우영 위원** 거기 앞에 ‘위헌·위법’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김현 위원** 아니에요. 지금 ‘12·3 비상계엄’이라고 써요, 통칭해서.

○**위원장 최민희** 제가 성안을 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명칭 다시 읽어 드릴게요.

‘1.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장범 후보 내정자와 박민 사장은 같이 부르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마무리하였습니다만 1979년 비상계엄 이후, 그리고 80년 비상계엄 확대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현안질의 등의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시에 로텐더홀에서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분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질의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그리고 정동영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등등 다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2024년 12월 3일과 4일은 대한민국 현정 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역 세력의 친위 쿠데타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여야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 계엄령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반란행위이자 현정질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내란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2차 계엄 시도와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처리하고 수사와 체포, 구금, 기소, 처벌 등 사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헌법적인 이 같은 계엄에 대해 충격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기처럼 숨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저는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KBS가 이미 계엄계획에 포섭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입니다. 공영방송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사와 달리 KBS는 부끄러운 중계식 설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입장 받아쓰기 수준의 보도로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절박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시청률에서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공영방송은 특정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 KBS의 의무이자 역할이겠지요.

또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위정보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서 높은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데 KBS는 그와 같은 책무들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국내외 모든 언론이 계엄 정국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필했고 대부분의 지상파와 종편 뉴스는 특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KBS 메인뉴스는 평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뉴스를 하고 끝냈습니다.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메인뉴스 프로그램 앞뒤로 특보가 이어지는 다른 방송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데이트된 상황들을 보도했습니다. SBS 8뉴스는 3시간 2분 동안 뉴스를 했고요. MBC 뉴스데스크는 2시간 8분을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KBS 뉴스9는 58분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하면 절반 내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었습니다.

MBC와 SBS 뉴스 모두 시작과 마무리에서 앵커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대통령의 비상식적 폭거를 지적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KBS 앵커는 관련 대목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통제 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서도 MBC와 SBS 뉴스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몸을 던진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그 긴박했던 현장을 뉴스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처절한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의 검열이 강화됩니다. 뉴스도 통제됩니다. 공영방송 KBS는 불법 쿠데타 정권의 일방적인 도구로 활용될 위기에 처했고 당일 실제로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KBS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던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그 희망의 현장도 제대로 전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일 KBS 앵커들의 멘트는 이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계엄령 방송을 자처한 것입니다. 용산의 방송이 계엄군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민이 부당한 권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 봐도 아찔합니다. 12월 3일 서울의 밤 때 우리 애국시민들과 우리 사랑하는 국회 보좌진과 우리 야당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현장을 지켰던 언론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돌이켜 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파괴됐을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이미 장악한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를 넘어서 국회까지 장악해서 1인 왕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부인 김건희와 함께 윤석열, 김건희는 대한민국을 망쳤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윤석열은 권력,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찬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공영방송 KBS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언론이 특수 정예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를 찬탈하는 영상을 트는 동안 KBS는 애써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이요? 그 역할 이미 상실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따위로 보도를 합니까?

저희는 KBS 관계자들을 부르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엄중히 책임을 지우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그들 또한 내란의 부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박장범과 박민과 정권에 부역하던 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2월 3일 전후로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없습니다.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께 엄중하게 경고하고 촉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댑니까?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런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요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장 물러나라, 그만둬라. 거부했습니다. 그자는, 윤석열은 계엄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사령부를 찾아서, 국방부를 찾아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또 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자가 대통령입니까?

우리 국민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하고 안전을 파괴하고 경제를 망치고, 어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전두환에 이어서, 12·12 군사 쿠데타 반란 세력들에 이어서 대통령 윤석열이 저런 짓을 한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탄핵을 해서 직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제2차 계엄으로 우리 시민들을 살상할지 모릅니다. 온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막겠습니다. 그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으로 지금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일정대로 발언을 먼저 하신 위원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못하신 분은 제가 끝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없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 한동안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아서. 그러니까 발언하신 분들은 시간 되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저히 정제된 단어를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을 나가서 광증 수준입니다.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히 곁으로 내뱉지 못했던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포고하고 국민을

향해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썼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권을 틀어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무장한 계엄군이 군홧발로 짓밟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장, 여당 대표까지 체포조를 돌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죄 수괴입니다. 윤석열 내란죄 수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다 야당 탓이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공동정범인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고 내란죄를 시인까지 했습니다.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례상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 반역행위입니다. 그런데 내란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행태입니까?

12월 3일 계엄 그날 저 또한 경찰들에 의해서 국회 출입을 저지당했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시민들 그리고 몇몇의 양심적인 군인과 경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가 앓아 있는 이 상임위 회의장도 계엄군한테 점령당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탄까지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국정원에 여당 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폭로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내란 수괴 단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미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손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유의 사태에 손톱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 철저히 파헤쳐서 내란에 부역한 자들 모두 포고령에 언급된 표현처럼 처단해야 합니다.

KBS 협안질의는 기본입니다. 과기부, 방통위,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규명하고 국무위원인 유상임 장관과 국무회의 배석자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과연 헌법 수호, 민주주의 정신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997년 4월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 국헌문란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리적으로 처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다면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을 논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판시를 했겠습니까. 모의만 해도 너희들은 내란의 공동정범이다. 강하게 처단했습니다. 다시는 국가권력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릴 수 없도록,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참변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지금 무슨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 위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리든 내란을 저지르든 북한에 포를 쏘든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게 헌법기관이 할 행태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란의 공범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국민들은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을 반역죄 공범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면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반역의 말로는 국민의 처단뿐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이번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로서 이 내란행위에 대한 예비적 준비로서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 방심위의 류희림, 방통위의 이진숙, 그 후의 김태규 대행, KBS의 박장범, 이분들은 80년 언론 통폐합 때 허삼수·허문도·허화평 그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암도적 다수의 국민들 또 국회에서의 과방위원들이 이들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그 의도를 만천하에 폭로·공개함으로써 방송장악 실패가 12·3 내란 시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3 내란 과정에서도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미리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KBS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면 방송법 제2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엄사령부가 KBS를 계엄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법적 방식의 쿠데타를 하는 모든 세력은 국민의 눈귀를 가지고 말할 권리를 틀어막음으로써 그 쿠데타는 시작됩니다. 이번에 방송장악에 기초해서 국민의 눈귀를 가지고 국민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그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격파해 나간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였지만 국민들이 막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이자는 12월 5일 신속심의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민주노총 사이트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반란행위에 류희림이 가담한 것입니다. 류희림은 자기의 가족을 동원했고 가족을 동원해서 정권의 보위와 연관된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방송의 자율권을 침해해 왔던 방송장악의 주범입니다. 류희림을 당장 소환해서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박장범 앵커, 우리가 기억하듯이 대통령이 본인이 앓아 있었던 국무회의의 좌석에 ‘박장범 앵커 앓아 보세요’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앵커에게 그 자리를 권했던 거는 역시 전두환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하나회 멤버에게 자리에 앓아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밑에 서열·계열화시켰던 장면이 바로 파우치 방송에서의 박장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봄 직한 그런 장면들이 설마 설마 대한민국 21세기 이

선진 K-문화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쿠데타, 방송장악 쿠데타, 비상계엄 쿠데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이번 12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은 목도했고 그걸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또 다가올 윤석열발 또 다른 계엄 시도나 내란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 포위, 고립, 섬멸시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발언 순서를 정할 때 이준석 위원이 잠깐 안 계셨어요. 그런데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 최민희 또 안 계세요?

그러면 이해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의 주제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참담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MBC 속보 보자마자 저는 커튼을 치고 집 앞 CCTV를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해서 과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상당한 신변의 위협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2차 계엄 우려에 모든 일정 취소하고 비상대기 하느라 국회 과방위 등 의정활동에도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의 밤을 함께 보냈던 보좌진, 언론인 그리고 함께 뜬눈으로 밤을 세워 주신 국민들 모두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장병들은 유서까지 쓰고 작전에 임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새벽에 무장을 하고 진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 씨에게 묻습니다.

극우 유튜브 말 믿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려 했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이유입니까? 내용상 절차상 모든 게 문제인 불법이고 반헌법적 내란행위입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며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담한 모든 이가 내란 공범입니다.

국민의힘 여당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여러분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내란 공범이 될지 국민의힘 국민의 곁에 설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투표는 무기명입니다.

우리 국회 과방위에 매우 중요한 사안 또한 있습니다. 계엄 시 우선순위에 방송통신장악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과 통신 장악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동됐고 일부 언론을 체포하려는 움직임과 방송 검열, 언론 통제 위험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언론사에 지침을 하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방

심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 행동을 빠르게 해서 내란에 동조한 정황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방통위원장, 이 둘은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방송·통신 장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기습 계엄 사실을 이전에 알았었는지, 사전에 알았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었는지, 방송·통신 통제 시도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정한 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련 기관 모두 포함시켜서 국회 과방위가 다뤄야 하는 모든 범위의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국회가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할 일을 모두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급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오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미 출발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봐야겠지만 이게 심각한 함정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분노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씨가 충돌을 야기하려는, 그거를 빌미로 경비 계엄 등을 발동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예상하고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대통령 차량이 이동하는 걸 보더라도 결코 접근을 시도하거나 뭔가 위태로 저쪽에서 규정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회에서도 대통령 차량이 방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널리 전파하셔서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발언시간은 달리 좀 주세요. 이거는 긴급히 한 거고요.

○위원장 최민희 예,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남은 충성파 군인들이 있다면 그건 경호처 인력 같습니다. 100여 명……

○노종면 위원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100여 명 되는 경호처 인력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대통령의 차량이 이동하거나 그런 것을 목격하더라도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위험성을 몇 번 경고해 오고 이분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회의 각 상임위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가장 민망한 것은 이분이

계엄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수행했던 그런 공작 자체가 이미 4년이 넘은 부정선거 담론을 끌고 와 가지고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첫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인천의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기에 제가 인천지검 애들 짹 보내 가지고 선관위 딱 압수 수색해 가지고 다 엑스, 엑스 해 버리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저와 이분의 살면서 했던 첫 대화였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을 취조하겠다고 다뤘던 26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왜곡된 잣대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다뤘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대한민국의 불행이었던 거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런 음모론과 가짜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임기 전부터 임기가 수행되는 동안 수없이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과 접촉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단체가 움직이고 이런식의 소통 체계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지는—결국 이런 아주 안 좋은 시도가 슈퍼챗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금전으로 치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담론 형성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전적 검열이나 아니면 발언의 자유를 막는 어떤 형태의 제약도 없어야겠지만 다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시키고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담론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매우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슈퍼챗의 30%를 그들의 플랫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적절한 규제 없이는 이런 불건전한 담론 형성에 있어서 얻어 가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공론 형성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마디만 보태자면 이번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에 따른 내란 시도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어디 가서 압력밥 솥으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을 통진당 정당 해산의 시발점

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현 국민의힘입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지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한다면 내란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으로 옹호를 하려고 한다면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탄핵 사태에 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윤석열 씨가 국회로 이동 중인 것 같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는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국회 앞에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절대로 윤석열 씨 차량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씨 내외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장께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한민수 위원 의장이 발동할 수 있는 것 없나?

○이준석 위원 아니, 본청 막아야지, 본청.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발동해서 막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민희 국회의장께서 이 사실이 전달돼 있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내란 사태의 본질적인 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라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미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4월에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 모처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다수가 포함된 여권 핵심 인사들과 모여서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반드시 잡아 처넣는다’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란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재명을 처넣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실질적인 내란을 감행했다고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께서, 위원께서 윤석열 씨가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조차부터 부정선거 대책 문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탈취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 문건이 오늘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씨는 후보 시절부터 음모론에 심취해서 자신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도 원래 크게 이기는 건데 민주당이 조작을 해서 가까스로 이겼고 이후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지금은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선을 그으려고 아등바등 별짓을 다 하지만 2022년 당선 직후에는 명태균 씨는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이 최측근 인사였던 명태균 씨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음모론을 더욱 심화시키고 구체화시켰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함께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정권을 당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부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웬만하면 부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왜? 국어사전에 국가에 반역하는 일,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일에 가담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부역이라고 표현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다수는 이미 부역을 저질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역의 책임은 국민이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고쳐먹고 윤석열, 내란죄 수괴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내란을 깨끗이 종료시키고 정상을 되찾는 그런 일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윤석열, 현재도 군 통수권자입니다. 참 기이한 현실인데요. 국회로 이동 중이다 이런 말씀 지금 위원장이 하셨는데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4시간째 현실 같지 않은 현실, 가상현실, 비현실이 현실에 지금 64시간째 지속 중인데, 사실 국회는 특전사 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을 발령해서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킨 자가 국회를 방문한다, 이것은 기이한 현실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소극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의 이름으로 의장 째…… 내란의 수괴로 규정한 윤석열이 국회에 정상적으로 입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 보안사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여전히 현직에서 지휘봉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을 동반한 태풍의 중심권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윤석열이 국회를 입성하고자 하는 이 순간인데 이 질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 의원들께서 행동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 1980년의 대한민국 국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3일의 망동은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손가락질하던 국회가 이번에는 CNN이 현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밤을 새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며 보도를 한 기자들과 언론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방위가 지난 몇 달 동안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영방송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과 투쟁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장악에 실패한 한 공영방송은 사실 보도, 사실 전달을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밤을 새워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고령 제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첫 순위에 있었던 KBS에서 어

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에 내란 수괴 체포 대상인 윤석열이 국회를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내란, 국회의 계엄 해제, 성숙한 국민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며칠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에는 윤석열이라는 누구도 상상 못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내란의 수괴 윤석열, 그 인간이 지금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국회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반드시 국회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동안 상상 못 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0·26이 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 장갑차가 진주하고 총을 들고 군인들이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계엄은 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군부독재 시절이었습니다. 2024년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켰고 그 내란의 수괴가 뻔뻔하게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국회를 지켜 냈고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 윤석열의 폭거를 국회 의결로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지켜 낸 공영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4일 MBC 뉴스, 저는 최고의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MBC는 45쪽지의 뉴스 리포트를 했습니다. 계엄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국민들이 이게 내란인지, 왜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고 내란의 공범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4일, 12월 5일 이틀간의 MBC 뉴스 또 JTBC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번 내란이 어떻게 된 건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 때문에 내란의 주위를, 언저리를 맴돌던 세력들이 등을 돌리고 공범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KBS의 현실, 모든 국민들이 목도하셨습니다, 정권에 장악당한 KBS는 어땠는지. 그래서 저는 과방위에서 명확히 이번 계엄에 대한 언론의 상황, 공범이 누군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없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께 내란의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제발 역사에 떳떳하게 심판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전두환이 환생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회로 오는 것은 지난번 4일,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오늘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서 다시 국회를 점령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제2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내란의 괴수, 내란의 공범들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단 한발도 들여놓아서는 안 되고 들여놓는 순간 국민들을 짓밟은 그리고 총칼로 국민들을 탄압한 전두환이 했던 그것을 2024년 12월 6일, 12·12를 6일 앞둔 2024년 12월 6일 날 또다시 자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윤석열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 최후 보루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시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소집된 관계로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탄핵으로 윤석열을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 죄상을 낱낱이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들 앞에 보고하고 그 기록과 증언은 훗날 다시는 이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대통령이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범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정당은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정원 제1차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국정원에 ‘이번 기회에 썩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다시 줄 터이니 지시를 따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깨알 같은 협상을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용산은 친일파,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직 김건희 방탄을 위해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민주주의가 윤석열, 김건희 비정상적인 두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대통령의 이동으로 인하여 국회 전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좌진들도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빨리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내란의 괴수, 수괴 윤석열 씨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거부해 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훈들리지 않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불분명한 하야 같은 그 거짓말, 꼬시기로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즉시 자진 사퇴하고 체포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국회를 짓밟는 장면이 방송을 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에 의하여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국민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런 국회에 윤석열 씨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은 즉시 윤석열의 국회 출입을 불허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들의 목표는 우발적 충돌입니다. 그 우발적 충돌을 빌미로 어떤 유혈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유혈 사태를 야기해서 잔인한 비상계엄을 또 추진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저희들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윤석열과는 저희가 맞서 싸울 터이니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접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외신에서 윤석열은 당장 그만

두거나 탄핵되어야 한다고 쓸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가 뜰뜰 풍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회가 시민 여러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9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박 민	KBS 사장	2024. 12. 13.(금) 10:00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김동윤	KBS 편성본부장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김성진	KBS 주간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장한식	KBS 보도본부장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최재현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참고인(5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어준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진행자	2024. 12. 13.(금) 10:00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박상현	KBS 본부노조 본부장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관련

### ○출석 위원(13인)

김우영 김 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2024. 12. 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

이상 2건 12월 3일 회부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

12월 4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6)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3. 오병일로부터 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

12월 4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49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36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96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97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199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